안전,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곳

국내 최초로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PHC)을 개발 공급하고 있는 대림C&S 충주공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장수현 안전관리자, 각종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짓기 위해서는 연약한 지반에 반드시 콘크리트 파일을 시공하여 지지대를 만들어야 하듯이, 이곳의 안전에 있어서도 튼튼한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를 만나 11년 간 경험한 안전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대림C&S **장수현** 안전관리자
취재 | 임재근 기자

산업공학도 안전과 인연을 맺다

충북 충주시 용탄동 산업단지에 위치한 대림C&S(주) 충주공장은 국내 최초로 고강도 콘크리트파일을 개발 · 공급하였고 연간 6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공장설계에서부터 안전을 고려한 설비배치로 안전한 사업장으로도 손꼽히는 대림C&S 충주공장, 이곳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장수현 안전관리자가 이번 자랑스런 안전인의 주인공이다. 올해로 42살의 장수현 안전관리자는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마치고 구미에서 대학을 졸업, 1995년 지금의 대림C&S의 생산관리 파트에 입사하였다. 대학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한 그는 생산관리업무와 품질관리를 맡아 3년간 현장 경험을 쌓고, 98년 하반기부터 대학 시절 취득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이 인연이 되어 본격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맡게 되었다.

현장에 안전을 적용하다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았던 현장에서의 안전과 직접 안전업무를 담당하게 된 현실적인 안전은 많은 면에서 차이가 났다. 심각하게 고려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또한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과제였다. 고강도 콘크리트파일을 제작하는 업종의 특성상 1톤에서 10여 톤 이상의 중량물 취급이 빈번하고 컨베이어설비와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의 잦은 사용으로 현장에서는 협착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안전모나 안전화, 귀마개 등 안전보호구의 착용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소한 위험도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재해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장수현 안전관리자는 근로자의 안전의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강화와 작업 전 반드시 위험예지훈련을 통해 근로자가 작업 내용을 숙지토록 하였다. 또한 작업에 있어 위

◀ 왼쪽부터 아내 유순례 씨, 작은딸 장지은 양, 큰딸 장희은 양, 장수현 안전관리자

험요소가 무엇인지 파악, 그에 대비하는 보호구착용과 작업방법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실시 초기에는 약간의 반발과 마찰이 있었지만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근로자들을 설득시켜 나갔고, 이제는 전 작업 공정에서 보호구 착용과 위험예지훈련을 통한 지적활동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안전, 노력하면 반드시 그에 맞는 대가가 주어지는 일

안전과 인연을 맺은 지도 올해로 11년 째, 짧다면 짧은 세월이지만 앞으로 계속될 안전업무에 있어 지난 11년은 그의 인생에 있어 아주 소중한 경험과 재산이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안전과 관련된 일에는 "완벽" 또는 "100%"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안전", 하지만 끝이 없다면 안전을 담당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의 노력도 끝이 없을 것이다. 처음 안전 업무를 하던 1998년,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열혈 청년은 사소했지만 여러 건의 안전사고를 경험하고 안전점검과 위험요인 개선 등에 하루 해가 모자랄 만큼 열심이었지만 안전사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에 심한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한계에 부딪쳐 보자는 심정으로 현장에서의 위험요인은 물론 작업장 주변과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매진한 결과 안전사고는 줄어들었고, 안전도 역시 노력이라는 In put에 무사고라는 Out put이 존재한다는 경험을 얻게 되었다.

신입사원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보람을 느껴....

기업의 역사만큼 근로자들도 함께 세월을 보내고, 이제 근로자들 대부분 10여년 이상을 함께 동고동락한 사이인지라 웬만한 집안사정 정도야 다 아는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다.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돌보는 근로자들을 볼 때마다 그 동안 흘려온 땀방울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위안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전혀 경험이 없는 신입사원들이 입사하면 긴장을 하게 되는 안전관리자로서 철저한 안전교육과 선임 근로자들의 세심한 배려와 작업교육을 통해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또 시간이 지나 2년여가 되면 오히려 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모습에 그는 보람을 느끼곤 한다.

안전관리 업무는 투철한 사명감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모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사명감을 갖고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업무에 매진하다 보면 노력한 만큼 반드시 무재해 사업장 건설은 꼭 이루어질 것이라 그는 말한다. 2010년 대림C&S 현장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의 무재해를 기원하며 안전이 경쟁력이 되는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길 기원한다.